



경남대 스마트기계융합공학전공

정리 김기선 리포터 quokka@naeil.com

도움말 이태일 교수(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 스마트기계융합공학전공 주임교수)



#소속 대학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학과 소개

스마트 기계 융합을 연구하는 학문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창원시의 지원을 받아 2021학년에 개설된 3년 차 신생 학과다. 전통적인 기계공학의 핵심 역량을 배우고 전기, 전자, ICT 분야를 융합해 제조DNA(Data, Network, AI)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태일 교수는 “1학년 때는 기본적인 교양 과목들과 제품의 설계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 코딩,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을 배우며, 2~3학년에 걸쳐 전공에 필요한 필수 역학 과목들과 스마트 제조에 활용되는 ICT 관련 교과목들을 배운다. 4학년 때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졸업작품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졸업 후에는 스마트 제조를 포함해 자동차·선박·로봇·엔지니어링 회사 및 연구소 등에 진출한다”고 설명한다.

#2024학년 수시&정시 선발 인원

입학 정원은 30명이다. 수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 11명, 지역인재 13명, 한마인재면접전형으로 5명을 선발하고, 정시 모집에선 일반 전형으로 2명을 선발한다.



특징

✦ 기업 맞춤형 취업트랙

맞춤형 취업트랙(KAI)을 운영해 2학년 말부터 3학년 1학기 중 학점, 영어 성적,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1차로 선발된 학생들은 기업 맞춤형 교과목들을 이수하며 4학년 1학기까지의 학점 및 영어 성적에 따라 2차 선발 과정을 통해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받는다. 현장실습은 실무 인턴십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 학생 중심 연구 활동

신입생들은 1학년 때부터 기본 교육을 통해 연구실에 소속되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활동 지원비가 제공되고 연구 결과에 따라 학회 참가와 논문 작성을 지원받는다. 현재 1기와 2기 학생들은 자율주행차량, 적층제조, 가공시스템 프로그래밍, 풍동을 활용한 공력시험 등의 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진로

모든 제조 산업(기계, 전기·전자) 분야, 특히 스마트 제조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진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분석 전문가로 육성되어 모든 산업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



지역 대학에는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학과나 수도권 대학에는 없는 유망 학과들이 있습니다. 지역 대학일수록 대학의 이름보다는 학과나 졸업 후 진로를 최우선 고려 요소로 두는 경향도 높죠. 학생들의 폭넓은 학과·진로 탐색을 위해 지역 대학의 유망 학과를 소개합니다. 해당 학과에 진학한 후 배우게 될 교육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전망도 짚어봅니다. _편집자